

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

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이하 LINC+) 사업의 일환.

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 지식과 4C 능력(비판적 사고력, 소통능력, 창의력, 협업능력)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선도대학 사업은, 대학 내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(대학의 교육 과정·교육 방법·교육 환경의 혁신 및 성과 검증 모델 수립)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.

5개 권역별(수도권, 충청권, 호남제주권, 대경강원권, 동남)로 1개 대학 이상이 포함된 총 10개 대학 선정

- 혁신선도대학 : 각 10억원의 사업비 지원
- 신사업 : 스마트 헬스케어·자율주행차·사물인터넷(IoT)·AR(증강현실)/VR(가상현실)·스마트 팩토리·인공지능 로봇 등
- 선정절차
 - 서면 평가(1차)
 - 대면 평가(2차)
 - LINC+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·확정